

10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8-13

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⁹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¹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¹¹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¹²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¹³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말과 지식에 풍족하고, 여러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등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고, 성도들은 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사가 풍성했던 만큼 교회가 성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라 나뉘었고(고전 1:12), 지식을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했으며(고전 8:11-13), 예배 중에도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고전 14장). 은사가 오히려 교만과 분열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으로」

1.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고전 13: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 예언: 진리를 말함, 바른 길로 인도함,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말
- 방언: 신령한 영적 체험, 깊은 기도
- 지식: 성경적, 세상적 여러 지식들

예언과 방언, 지식으로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모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눔 질문

1)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가 1897년에 그린 <과학과 자비>라는 그림을 보고 발견한 점을 나눠봅시다. (QR 코드)



2) 바울은 교회를 향해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하였습니다(빌 1:9). 주님과 교회, 가정과 일터,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2.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고전 13:9-11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 어린아이의 특징: 부분적인 삶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깨닫고 느끼는 단편적인 부분을 전부로 여기는 시각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2) 온전함이 오기까지의 공백과 한계

- 온전한 것 (τὸ τέλειον)은 12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다시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고전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종말(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인간의 삶과 깨달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 “사랑”

바울은 온전히 아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으로 말하고 대하며 섬기라 권면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배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린도전서 13:4-7**을 암송해 봅시다.

3.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입니다.

1)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 믿음 (πίστις)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 소망 (ἐλπίς) -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기대입니다.
- 사랑 (ἀγάπη) - 하나님의 본성이자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며, 가장 높은 계명이자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2) 왜 사랑이 제일 인가요?

-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8).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마 22:37-40).
-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고전 13:1-3).
-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3:8).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롬 13:10).
- 사랑은 모든 덕목을 매는 온전한 띠이기 때문입니다(골 3:14).

「적용하기」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사역 리더 Julian Wolton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요 15:9).

우리는 흠없고 완전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2)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빌 1:9).

사도 바울에게 사랑은 언제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갓출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 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그 사랑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1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2과: 사랑은 온유(친절)합니다.

3과: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4과: 사랑은 교만(자랑)하지 않습니다.

5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6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7과: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8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9과: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줍니다.

10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동안 배운 사랑의 주제들을 되돌아보며, 가장 깊이 공감했던 주제 하나와 여전히 내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자 했는지 돌아봅시다. 연말을 맞이하여 내 주변에 나의 사랑의 수고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나눠 보고, 그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3.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15가지 모습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 봅시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복음의 열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건디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영원한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배운 사랑을 작은 하나라도 삶으로 실천할 선한 마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순원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 질문

1. 우리는 일 년 동안 사랑의 여러 모습을 배웠습니다.